

**사설**

**군승특별교구 설치 서둘러야**

조계종 군불교위원회가 군승특별교구 설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군승특별교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진작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필요성에 비해 실질적인 행동은 속도가 늦추어져 왔다.

9월 23일 군불교위원회가 군승교구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필요성을 현실화 하는 실질적인 작업에 박자를 가하겠다는 뜻이어서 고무적이다.

군승특별교구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군 포교와 관련한 종단차원의 열의가 배가된다는 점과 군법사들의 위상이 한층 업그레이드된다는 것이다. 물론 궁극의 목적인 군 포교의 토양이 그만큼 기름지게 될 것이란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군 포교에 대한 종단 차원의 예산

지원 확대와 포교 프로그램의 일관적인 공급 등 포교현장의 '기동력' 강화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군승특별교구 설치라는 데 이견이 없다. 또 종단과 군, 군 법사, 각종 후원활동 단체를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코드 역시 군승특별교구라는 법적 장치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군 포교의 일선에 나가 있는 군법사들이 군내에서 보다 분명한 위상을 갖고 종단 내에서도 책임감 있는 지위를 갖게 됨으로 가일층 군 포교에 매진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때 군승특별교구의 설치와 관련된 작업을 하루라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군 포교의 활성화란 과제를 풀기 위해 군승특별교구 설치 작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사찰문화재 보수 예산 유감**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상처가 너무 크다. 수재민은 말할 것 없고 전국에서 자원봉사자가 현장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 작업에 나섰다.

이번 태풍으로 말미암아 문화재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태풍이란 자연의 위력 앞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지만, 해마다 찾아오는 태풍이므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년도 사찰문화재 보수를 위한 예산이 지난해 수준(51억3천1백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한 사찰당 지원상한금은 6천만원이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비가 수억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문광부가 사찰당 상한액을 6천만원으로 정한 탓이다.

문화재 보수를 사람의 몸에 빚대어 말하면, 환자를 치료하는 셈이다. 응급처리를 요하는 환자도 있고 꾸준한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도 있다. 또한 발견하여 치료하면 완쾌되고 비용이 적게 들 것을 때를 놓치면,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사찰 문화재가 차지하는 문화재의 위상에 걸맞게 보수에 따른 예산은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연구조사에 앞서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우선해야 할 사업이 문화재를 현상대로 보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집안에서도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병원을 먼저 찾아 진단을 받지 않듯가.

문화재 보수만을 위한 특별 직립금을 구축하자. 예산의 확보와 집행에 따른 회계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응급처치부터 장기적인 치료를 위한, 그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인쇄인 : 채수삼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nia.com
	불교소평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대표전화 02-737-8881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초·중·고 국사·윤리교과서 불교기술 오류 많아**

**교계에 교과서 감수부 뒤편**

**용어 오용·종교편향적 서술 등**

제7차 교육과정에 쓰이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국사·윤리 교과서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불교의식을 심어주고 있어 관련내용 오류수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인원 문화박사(진선여고 교사)는 9월 22일 (사)파라미다 청소년협회 부설 청소년문화연구소(소장 김형중)의 월례세미나에서 대한교과서,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금성출판사, 동아출판사 등 4개 출판사가 발행한 검인준 국사 교과서에 실린 불교 내용과 기술 분량을 타종교와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서 박사는 “교과서 별로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불교를 개신교 등에 비해 적게 기술하는 등 불교계의 사회 참여운동과 문화선도 기능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사학과 불교학의 연계와 검인정 집필자 선정 및 교정과정에서 불교학자 참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불교계 내 교과서 감수부서의 설치”를 주장했다.

이어 주요인 철학박사(진선여고 교사)는 국정교과서인 전통윤리 교과서에 기술된 불교용어의 오류와 종교적 편파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기본적인 용어인 ‘스님’이란 말조차 산승, 스님, 승려 등 편리에 따라 제각각 표기돼 있어 학생들의 혼란과 오해를 유발하고 있고, 불교의 삼법인이나 참선에 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채 잘못된 지식들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리교과서의 한국전통사상 부분을 보면 유교에 관한 기술이 90페이지 1,372줄에 달했으나 불교는 9페이지 63줄에 그쳐 일방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며 “특정 종교의 입장에서 한국의 사상 전부를 판가름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즉, 교과서가 청소년들의 사고에 미칠 영향과 불교에 대한 편견

과 잘못된 인식을 갖는 학생 증가에 따른 파장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형중 교장은 “지속적인 연구와 발표를 통해 교과서 내 불교 문화와 역사의 오류와 편파내용들이 수정되려면 종단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문화연구소 내 교법사들과 현지 종립학교 교사들은 2002년 6월부터 정기적인 월례세미나 자리를 갖고 현 7차 교과서를 분석, 2002년 조계종과 백서를 발간하는 등 교과서 내 불교내용 오류 수정운동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김은경 기자 ipck@buddhania.com

**해외거주·파견 포교사 한국문화 체험행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0월 2-5일 해외거주 및 파견예정 국제포교사를 대상으로 경북 안동, 문경, 충북 단양 등지에서 한국문화 체험 행사를 갖는다.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4회째 열리는 이 행사는 조계종, 진각종, 총지종, 원불교 소속 77명의 국제포교사가 참여해 봉암사, 부석사, 봉정암, 구인사 등 사찰답사와 안동 동화마을, 소수서원 등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박병영 기자

**내년 문광부예산안 확정 불교관련 사업지원 136억**

문화관광부 내년도 예산이 1조 3930억원으로 확정됐다. 불교 관련 예산은 136억810만원으로 1.02%의 비율을 차지했다.

전통사찰보수정비 비용 51억 3100만원을 비롯해 전통사찰 관광안내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5억 6000만원, 고려대장경 전산화 사업 4억, 작업템플 스테이 3억원, 세계여성불자대회 2억원 등이 책정됐다.

이동혁 기자

**분한신고 미필로 승적말소된 스님 1667명 구제의 길 열려**

**조계종 임시 중앙종회 승려법 개정**

분한신고를 하지 않아 승적이 말소된 스님들이 다시 승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23일 조계사 수행관에서 제160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승려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현행 승려법 제54조 3항 제적처리 조항 중 ‘분한신고 미필로 승적이 자동 말소되어 2년 이상 경과한 자’를 삭제하고 ‘이 법 개정 후 실시되는 1회의 조치에 한해 복적할 수 있다’는 부칙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2003년 9월 현재 분한신고 미필로 승적이 말소된 1,667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종회는 또 11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5명의 승가이사 후보로 장운, 성오 스님 등 10명을 복수 추천했다. 그러나 재가이사 추천동의건은 재단 이사회와 종립학 교관리위원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차기 총회로 이월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공석 중인 중앙선관 위원에는 심경 스님(전 총무원 재무부장)을 선출하고, 임기 만료된 종립학 교관리위원회에 여연 스님(전 총회의원)을 재선출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총무원 사서국장 본해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범정스님은 9월 22일 공석 중인 사서국장에 본해스님을 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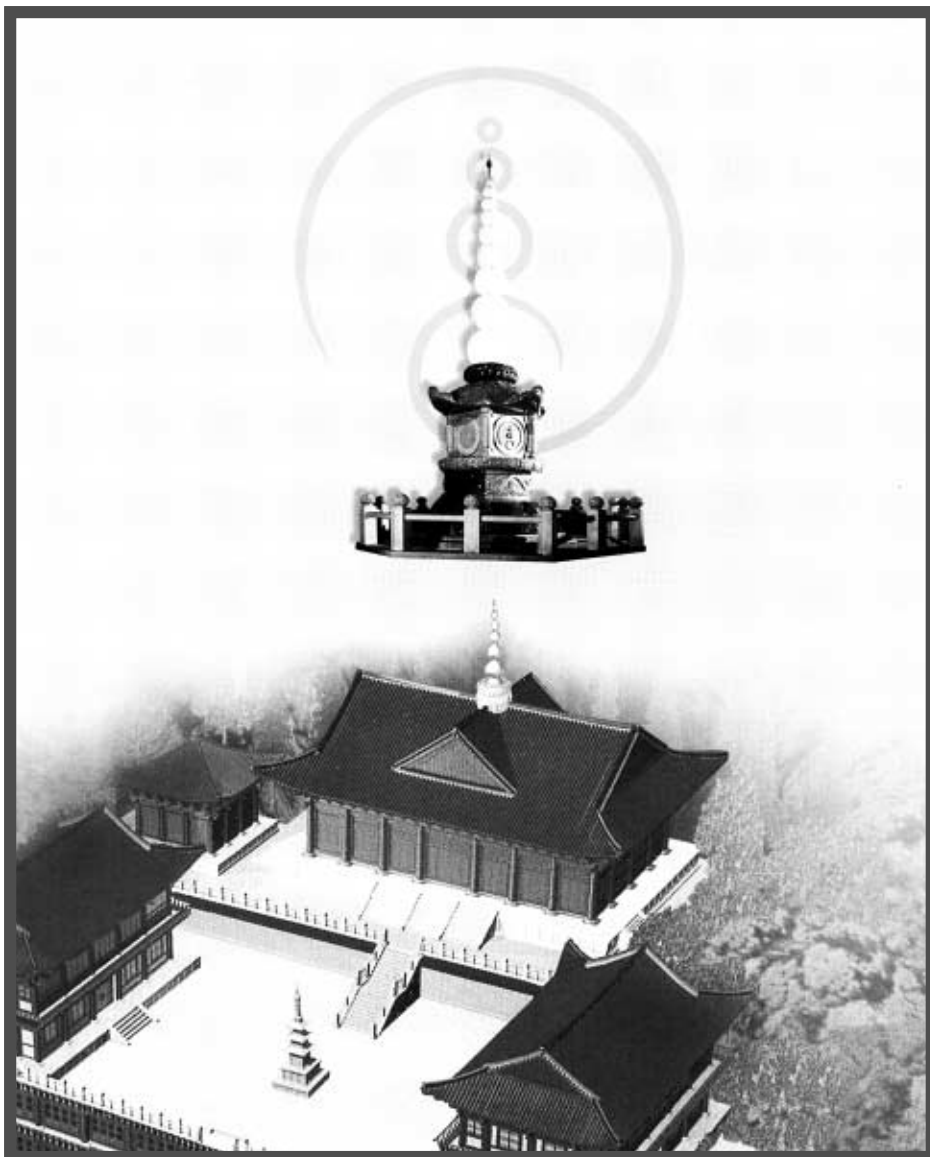
한명우 기자

**수재민성금 모금 활발 불자들의 동참 줄이어**

조계종과 본지를 비롯한 불교계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수재민 돕기 캠페인에 불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9월 26일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1천800만 원, 평불협 3백만 원, 용덕사 2백30만 원, 불국사 2백만 원 등 모두 1억3천1백40여만 원이 모금됐다.

한명우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 대법당 상량식

▶ 일시 : 2003년 10월 12일 (일) 오전 11시 ▶ 장소 : 한마음선원부산지원(태종대중학교 뒤)

모치는 글

귀의자성삼보 하옵고  
나와 일체 만물이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해지는 요즘입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사부대중은 만생명이 한마음 도리를 깨달아 대자유의 삶을 나누게 할 우주법계의 근본도량 건립을 발원하며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불자님들을 모시고 대웅전 상량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코자 하오니 귀한 인연자리에 큰결음으로 한자리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원장 **해도** 합장  
신도회장 **박성민**

부산시 영도구 동삼 1동 중리 522-1번지  
전화 051)403-7077 / 팩스 051)403-1077 www.hanmaum.org

**북한신문제등 추궁 국회 국정감사 이모저모**

◇정무위원회=9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산 관통도로는 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상희 우이령보존회 부회장은 '암(痛)'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부채를 국감장에 가지고 나와 "암이라는 한자를 보라. 뫼 '산'자 위에 입 '구'자가 세 개 있다. 그 위에 병집 '업'이라는 부수가 있다.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을 관통하면 바로 이런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화관광부=같은 날 문화관광부 국감에서 고홍길 의원(한나라당)은 "평당 1천만 원의 25평짜리 대웅전을 보수할 경우 총 2억5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상한액을 6천만 원으로 할 경우 사찰 자부담이 1억3천만 원이 된다"고 지적했고, 고홍길 의원은 "지원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9월 2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신영균 의원(한나라당)은 "무형문화재 중 보유자 없는 종목이 영산재를 포함해 5개이며 전수조교도 없는 항목은 24개나 된다"고 지적했고, 고홍길 의원은 "보유자가 부족한 종목은 예산 지원도 적어 전수활동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남동우·이동혁·오유진기자